



노후준비 우수 상담사례집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CONTENTS

노후준비 우수 상담사례집

01 청년층(20~30대)

1-1. 자립준비자금 마련과 지출 관리하기	4
1-2. 체계적인 자산관리 방법	8
1-3. 4년 후 내 집 마련하기	14
1-4. 창업자금 마련하기	19
1-5. 창업 후 독립자금 마련하기	23
1-6. 신혼부부의 지출 및 자산관리	27
1-7. 맞벌이 가구의 노후 자금 마련하기	31
1-8. 다양한 목적자금 마련하기	37

02 중장년층(40~50대)

2-1. 소상공인의 노후 자금 마련하기	45
2-2. 부부가구의 건강, 여가, 대인관계 개선하기	48
2-3. 자산 배분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하기	51
2-4. 노후 생활비 마련 및 대출금 상환하기	57
2-5. 자녀 독립자금 마련과 부채 상환하기	61
2-6. 은퇴 후 필요한 비상예비자금 마련하기	67

03 은퇴기(60대)

3-1. 노후 생활비 마련하기(1)	75
3-2. 노후 자금 마련과 개인연금 활용하기	79
3-3. 노후 생활비 마련하기(2)	82

노후준비
우수 상담사례집

PART

01

청년층(20~30대)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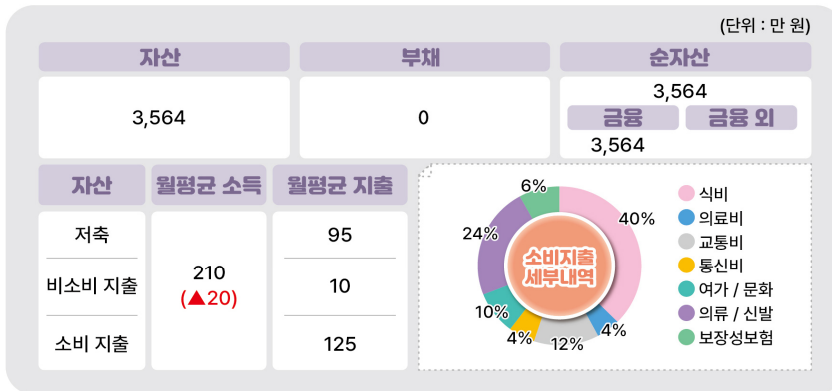
자립준비자금 마련과 지출 관리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참여자

- 단독가구, 30대 중반, 향후 독립하여 거주할 예정으로 독립자금 마련이 1순위 목표
- 현금흐름 점검 결과, 총수입(월 210만 원) 대비 총지출(저축, 비소비, 소비 포함)은 월 230만 원으로 20만 원 초과

재무현황 분석



재무현황 점검 결과

지표	산정기준	적정 가이드라인	재무비율(평가)	
가계수지	총지출/총소득	50% 이하	64%	과다
비상예비자금	비상예비자금/월지출	3~6배	0	부족
총부채상환	총대부상환액/총소득	25%	0	적정
총저축상황	총저축/총소득	50% 이상	45%	부족
보장성보험준비	보장성보험료/총소득	8%	3%	적정

▶ 재무 목표

- 40세까지 독립자금 마련하기(1억 원)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지출을 분석하여 새는 돈 줄이기

- 소득에서 지출하지 않은 부분이 저축 가능한 금액이므로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을 줄여야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 자동 저축 시스템 조성 필요
 - 나만의 '카페라떼 요인' 찾기
 -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값을 절약하여 장기적 목돈 마련 가능
 - 하루 커피값(5,000원) 절약 시 10년 후 1,800만 원 모을 수 있음
 - 커피가 아니더라도 습관적 소비 지출을 절약하고 투자할 것을 제안



• 현금흐름표 작성하기

- 매달 고정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지출이나 저축, 투자상품에 대해 정리
- '연간 비정기지출'과 '월 지출(정기적)'로 구분
- '월 지출'은 다시 항목별(저축, 고정지출, 변동지출)로 구분
- 한눈에 확인 가능한 '현금흐름표' 작성하여 과다지출 및 불필요지출 파악

고정지출	변동지출
지출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변동이 어려운 지출 - 월세, 통신비, 보험료 등	지출금액을 자유롭게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지출 - 식비, 오락·문화생활비, 교통비 등
고정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필수적인 지출이지만 줄이면 장기적 지출 부담 완화	우선순위가 낮은 지출부터 줄이기

2. 독립자금 마련(6년간 1억 원)을 위한 계획 수립하기

- 저축 자산 중 일부 자산으로 투자 제안
 -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정기에금, 자유적금 등으로만 운용 시 부족 자금은 약 973만 원으로 72개월 동안 매월 13만 원 추가 저축 시 목적자금 마련 가능
 - (제안) 기존 저축 자산 중 정기에금으로 ISA 계좌 개설하여 수익 창출

- 목적별 적합 상품에 저축/투자, 자산 배분 필요
 - 중장기 목적자금 : 비상예비자금 등 은퇴 시 필요한 자금을 위해 CMA, ISA 계좌 등을 활용
 - 노후준비 :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등 다양한 소득보장체계 활용
 - ▶ 각각의 포트폴리오로 목적별 나눠서 관리
 - (예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CMA + 위탁 계좌 + ISA
 - 노후준비 포트폴리오: 연금저축 + IRP(퇴직금)

[참고 자료]

계좌별 용도 및 특징

계좌	용도	특징
CMA	현금 보관	파킹 통장, 이자 발생, 금리 비교보다는 기간을 정해서 묶어두는 것이 유리, 예금자 미보호
위탁계좌	주식 투자	수수료 있음, 모든 투자 가능, 오래된 계좌는 신규 개설 후 주식 이체
연금저축	노후 준비	세제혜택, 계좌 자체 수수료 없음, CMA나 위탁 계좌가 있는 경우 연금 이전제도(은행-증권사-보험사) 활용하여 바로 개설 가능, 납입 및 세액 공제 한도는 통합 관리
ISA	자산 배분	금융 상품 운용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IRP	노후 준비	세제혜택, 계좌 자체 수수료 없음, 원금보장상품(저축은행 예금, ELB, GIC 등)과 함께 운용 가능, 연금저축과 통합 한도 관리 가능 (연 900만 원/1,800만 원)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소비 습관 개선
 - 쇼핑과 여행 등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비상예비자금과 통장 쪼개기 실행
 - 노후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퇴직금,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은 저축, 투자 등을 통해 조금씩 마련 예정

상담 후기



1대1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니즈에 따라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더불어 상담에 대한 책자와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후에도 자료를 참고하도록 해주신 점도 좋았습니다.

상담 종료 후, 추가적인 상담이 가능하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연금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셨습니다. 노후준비 기간이 긴 만큼 지속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지게 되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02

체계적인 자산관리 방법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참여자

- 단독가구, 20대 후반, 평소 저축이나 투자,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현금흐름 점검 결과, 월평균 저축 170만 원, 월평균 지출 270만 원, 총지출 연 5,280만 원으로 분석되며, 미파악 지출이 많음.

현금흐름				
수입(만 원)		지출(만 원)		
		구분	월지출	연지출
근로소득	440	정기저축	170	
		비소비지출	13	
		소비지출	85	
계	440	계	268	0
미파악지출		172		

▶ 재무 목표

1. (현금흐름) 소비, 지출관리 개선
 - 비상예비자금 마련
 - 가계수지 개선
2. (저축, 자산관리)
 - 저축률 늘리기
 - 부채 상환하기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현금흐름 제안

□ ○○○님의 재무비율

구분	지표	재무비율 방안		
		20대	현재	제안
비상예비자금	유동성자산 / 월지출	2배	- (0/270)	0→540 일반 입출금통장과는 별개로 비상금통장지정
총부채 상환	총부채상환액 / 총소득	30%	3% (13/440)	적정
거주 주택 마련 부채상환	거주주택마련부채상환액 / 총소득	20%	3% (13/440)	적정
소비생활 부채상환	소비생활부채상환액 / 총소득	5%	-	적정
가계수지	총지출 / 총소득	50%	61% (270/440)	270→220 지출점검 및 월 용돈지정
총저축	총저축 / 총소득	50%	39% (170/440)	170→220 소득의 50%이상 저축
금융 투자성향	금융투자저축 / 총저축	50%	-	0→85 ISA,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한 투자병행
보장성보험	보장성보험료 / 총소득	8%	2% (9/440)	적정 보험 점검

- **미파악 지출 확인하기** : 미파악 지출 항목을 목돈 마련, 투자, 대출금 조기 상환 등에 활용
- **지출항목별 살피기** : 가계부 작성을 통해 항목별 지출 금액을 파악하고 과소비(총소득의 10% 이상) 여부 점검
- **필수적인 지출 vs 부가적인 지출** : 취미·여가 등 부가적 지출은 우선순위를 매긴 후, 우선순위가 낮은 지출부터 줄이기
- **지출 줄이는 습관 들이기**
 - 냉장고 파먹기 : 냉장고 안의 재료들로 끼니 해결
 - 지출 없는 날 : 매 월 '지출 없는 날' 정하기
 - 외식/배달 음식 빈도 줄이기
 - 알뜰폰 요금제 사용하기
- **비상예비자금 마련하기**
- **용돈을 정해두고 지출하는 습관 들이기**
 - 월 용돈 금액(예 : 월 50만 원)을 지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 및 투자 자금으로 관리하기

- **비상예비자금 준비**
 - 질병이나 실직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고 무분별한 지출 증가 방지를 위해 비상예비자금이 필요합니다.
 - 적정 규모: 월 소비지출의 3~6배
 - 적합 상품: ①입출금이 자유롭고 ②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으며 ③중도인출 시에도 이자를 일할 계산해주는 CMA(증권사), MMF 및 파킹 통장(은행)을 추천드립니다.
 - 여행 계획 시, '여행용 비상금 계좌'를 만들고 매월 금액을 자동이체하여 지출 통제와 저축을 동시에 달성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보통예금처럼 계좌이체, 체크카드·신용카드 결제 등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하루만 맡겨도 매일 이자가 발생되어 비상예비금 통장으로 사용하기 적합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상품 존재)

2. 저축/투자 관리

- 저축/투자 목표 설정
 - 기간과 목적에 따라 **장/단기**, **목표금액**, **목표기간**, **월 저축금액**으로 세분화
 - 적금은 목적·기간별로 나누어 활용하고, 만기를 다양하게 설정해보세요.
 - 자산이 불어날 때 까지는 예금을 유지하고,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여 목적자금 마련하기

재무 목표에 따른 자산 및 금융상품

재무목표	기간	금융상품	참고사항
비상예비자금	단기	CMA, MMF, 저축은행(예금)	입출금이 빈번해도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율이 양호
주택마련	-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공공주택 청약에 필수,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와 비과세
단기목돈마련	단기	정부지원자산형성제도	원금보장형, 추가지원금
		은행 예적금	원금보장형
		ISA	비과세, 저율과세, 예적금/편드가능
노후준비	중장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 투자 시 유의 사항
 - 변동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 투자 수익이 큰 만큼 손실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원칙을 지키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위험만 감수하고 비상예비자금은 남기고 투자하세요. 투자를 결심했다면 처음부터 목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여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장기투자의 원칙] 장기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자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으므로 성장성이 나쁜 자산이라면 빨리 매도하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 주식과 채권처럼 가격 변화의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에 나눠 투자함으로써 손실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적립식투자의 원칙] 매월 같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한다면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매입하게 되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좌

구 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판매 금융회사	자산운용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보험사 및 은행
원금 손실위험	있음(비보장)	원금보장(예금자보호)
적용 금리	실적배당	공시이율
수수료	0.15~1.0%	4% 이상
납입금액 · 시기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상품유형	채권형 : 채권 60% 이상 혼합형 : 채권, 주식 혼합 주식형 : 주식 60% 이상	금리연동형 (적용하는 금리 매월 변동)
연금수령기간	확정 기간형(최대 30년)	확정 기간, 종신형(생명보험사만)
기 타	계좌 내에서 여러 펀드에 투자 가능 원금손실위험 있으나 높은 수익률 원리금보장(예금 등) 상품에 투자 불가	보험 비용 구조상 중도해지 시 불이익 안정성+소득이 안정적인 고객에게 적합

- ➔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 가능
- ➔ 자유로운 입출금 : 계좌 해지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현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소비/지출관리 개선
 - 통장 쪼개기를 실천하여 고정지출, 생활비, 비상금, 저축 및 투자용 계좌로 나누어 관리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비 기준이 생겨 불필요한 지출 감소
 - 가계부를 활용하여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며 스스로 재무 습관 관리
- 저축 및 투자 관리
 -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연금저축 계좌도 개설하여 미래 자산 준비 실행
 - 파킹 통장도 개설하여 비상예비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 기존 채무 정리
 - 상담 이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모든 채무 청산

상담 후기



상담 후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돈 관리에도 '방법과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절약을 잘 못해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상담을 통해 내가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경제적 자립심과 재무적 자신감이 생겨 앞으로도 더 나은 재무 습관과 계획을 유지하며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03

4년 후 내 집 마련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참여자

- 30대 초반 미혼인 청년으로 내 집 마련이 1순위 목표
- 현재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고 있어 지출조정이 시급해 보임
- 저축과 지출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때 소비 습관이 잘 형성되면 저축 및 투자로의 전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음

[지 출]			
구 분	월 지 출	연 지 출	통계평균*
비소비지출	34만 원	122만 원	87만 원
세금		자동차세 22만 원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부채상환	학자금 대출 14만 원		
가구간이전지출	20만 원	100만 원	
기부금			
소비지출	117만 원	142만 원	267.2만 원
식비/외식비	43만 원		39.7만 원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담배)
주거/용품비	15만 원		47만 원 (주거, 수도, 광열,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교육비			14.7만 원
의료비	1만 원		21.7만 원
교통비	유류비 등 15만 원	보험 50만 원 수리유지비 12만 원	29만 원
통신비	5만 원		12.8만 원
여가/문화	38만 원		68만 원 (오락, 문화, 음식, 숙박)
의류/신발		80만 원	14.3만 원
용돈			20만 원

보장성보험	14만 원	(기타 상품, 서비스 항목)
기타	46만 원	

* 출처: 2024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_소득구간 4~500만 원 이상 가구의 가계수지

▶ 재무 목표

□ 목적자금(2억 원)을 통해 4년 후 내 집 마련하기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 소득/지출 개선 제안

월 근로소득 400만 원, 월 블로그 수익 10만 원			
저축 및 투자 월 225만 원	- 주택청약통장 월 25만 원 - 적금 월 100만 원 - ISA 월 40만 원 * 상황에 따라 월 불입액 조정 가능	- 미국주식 월 35만 원 - 개인연금 월 25만 원	
고정지출 총 83만 원	부채상환 14만 원	연지출 총 620만 원	자동차세 22만 원
	관리비 15만 원		경조사 등 100만 원
	통신비 5만 원		여가/문화 218만 원
	유류비 등 15만 원		의류/신발 80만 원
	부모님 용돈 20만 원		기타 200만 원
	보장성보험료 14만 원		
월 생활비 총 50만 원	- 월 생활비 40만 원 - 비상예비자금 10만 원(블로그 수익)		

- ⇨ 현재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상황. 충분한 지출 조정 연습 후 잉여자금을 저축 및 투자로 전환할 것을 권장. 비정기수입(블로그 수익)은 저축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
- ⇨ 월 수입통장 410만 원 → (고정지출) 월 83만 원, (지출통장) 월 92만 원, (저축 및 투자) 월 225만 원, (비상예비자금) 월 10만 원

청년층(2030대)

- 3층 연금으로 노후생활비 마련 제안

- 3층 연금 현황

- (가정) 60세 은퇴, 기대수명 90세, 물가상승률 2.8%, 소득상승률 2.8%, 세후투자수익률 2.4%

필요자금	현재 준비자금	부족자금
263,710만 원	71,858만 원	191,852만 원
	73,118만 원	190,592만 원
은퇴자산 세부 준비 내역(현재 기준)		
국민연금	38,941만 원	노령연금 65세 수령, 세후 월 1,298,060원*25년 가정 시
	40,201만 원	노령연금 65세 수령, 세후 월 1,340,060원*25년 가정 시
퇴직연금	25,717만 원	만 60세까지 조직 생활 가정 시 (예상 급여액 854.8만 원*31년 가정, 예상퇴직소득세 781.9만 원 제외)
개인연금	7,200만 원	IRP 현재 불입액 360만 원 + 20만 원*30년 불입 시
소득활동	-	-

- 공적연금(국민연금)

- 현재 사업장가입자로 납부 중이며, 2025.7월 기준 현재 보험료(월 390,960원)를 만 60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연금 월액의 현재가치는 1,335,730원(세전), 1,298,060원(세후)으로 예상됩니다.

연금수령연령	현재보험료	현재납부월수	예상연금월액 (세전)	예상납부월수	예상납부금액
만 65세	390,960원	81개월	1,335,730원	432개월	161,292,380원

-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액을 늘리고 필요 생활비 마련하기(26개월 추납 가능)

조건	예상연금월액 (세전)	연금액 증가	월 보험료	추납납부	예상납부금액	총납부	총납부보험료
추납 신청	1,380,700원	44,970원	390,960원	14개월	5,473,440원	446개월	166,765,820원

- 퇴직연금

- (가정) 최근 직장 입사일(23.11월) 부터 만 60세까지 직장 근무, 기대수명 90세, 만 60세 부터 30년 간 월 69만 원의 퇴직연금 수령
- 급여, 재직기간, 운영수익률 및 수령 기간에 따라 수령액 변동
- 월 노후생활비 300만 원 가정 시, 퇴직연금만으로 필요 생활비의 약 23% 마련
 - ⇒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누적 199만 원(월 노후생활비의 66%) 확보 예상. 추납 시 누적 203만 원(월 노후생활비의 68%) 확보 예상.
 - ⇒ 추가로 월 100만 원 확보 필요. 31년간 월 100만 원의 확보를 위해 최소 3억 7천 2백만 원의 추가 자산 확보 필요. 소득활동 및 개인연금, 금융자산 활용 제안.

- 개인연금

- 현재 IRP 불입액(360만 원) + 월 20만 원씩 총 30년간 불입 시 예상 불입액 7,200만 원, 이를 만 60세부터 30년 간 단순 수령 시 월 19만 원 수령 예상. (월 노후생활비의 6.3%)
 - ⇒ 추가 필요한 자산 3억 7천 2백만 원 중, 2억 6천~3억 초반의 추가 자산 필요
 - 추가 자산 확보를 위해서는 [월 50만 원/28년 불입/연평균 수익률 7%] 또는 [월 65만 원 /28년 불입/연평균 수익률 3.5%] 달성 권장
 -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월 불입액은 소액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액할 것을 권장

- 목적자금(4년 후 2억 원) 마련 방안

- ⇒ 청약을 대비하여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 ⇒ 기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2억 원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
 - 1) 행복주택 보증금 3,600만 원
 - 2) 주택청약통장 현 평가금액 651만 원/4년 월 25만 원 불입, 수익률 2.5% 가정시 1,250만 원=총 1,950만 원 불입 예상
 - 3) 적금 현 평가금액 400만 원/4년 월 100만 원 불입 시 총 5,400만 원 불입 예상
 - 4) ISA 현 평가금액 1,500만 원/4년 월 40만 원 불입, 수익률 4% 가정 시 약 3,700만 원 예상
 - 5) 미국 주식 현 평가금액 3,500만 원/4년 월 35만 원 불입, 수익률 5% 가정 시 1,825만 원=총 5,900만 원 예상

- ⇒ 원금+이자 모두 누수 없이 예금 또는 투자상품으로 전환하여 복리 효과 발생시키기
- ⇒ 현 분양가(10억 원), 목적자금(2억 원) 가정 시 약 4년 뒤에 목적자금 달성 가능
- ⇒ 투자 수익률에 따라 3년 후 모이는 자금이 달라지므로 자산별 리스크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IRP와 연금저축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두 상품의 차이를 알지 못해 기존에는 IRP만 운용하고 있었는데 상담 후 적극적인 자산증식을 위해 연금저축 계좌 추가 개설
- 주택청약 전략 수립
 - 상담을 통해 공공분양/민간분양의 차이 및 현재 내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알게 되어 청약 납입액을 조정하고, 절감된 금액을 ISA 등 다른 계좌로 옮겨 투자 비중 조절

상담 후기



민간 업체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상담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높았고, 실제로 어떤 상품도 권유하지 않아 더욱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노후에 월 300만 원 이상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연금저축IRP청약투자 계좌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재무 상태 점검은 물론 장기적인 인생 계획까지 고민해볼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04

창업자금 마련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참여자

- 30대 중반, 7년 경력 단절 후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창업자금 마련이 1순위 목표
- 현재 지출 대비 수입이 많이 줄어들면서 복잡한 재무 문제들로 어려움 많음

현금흐름 및 자산 현황

월수입(계)		월지출(계)		
수입	50만 원	저축	35만 원	
		지출	소비지출	15만 원
			비소비지출	-
자산	총자산(예·적금, 비상금, 펀드)	8,040만 원		
	총부채(부동산 대출, 신용대출)	-		
	순자산	8,040만 원		

▶ 재무 목표

□ 창업자금 마련하기

- 필요 나이(37세), 필요액(1억 원), 월 저축 금액(약 425만 원) 필요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통장 쪼개기를 통한 지출관리 제안

구분	금액(만 원)	제안사항
비상예비자금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 CMA계좌 또는 은행 파킹통장 비상예비자금 관리 계좌개설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금의 규모 : 미혼의 경우 3~6개월 치의 생활비 - 현재 나의 한 달 생활비 : 약 15만 원
급여통장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계좌로 활용하여 고정지출(관리비, 대출이자 등)이 인출되도록 자동이체 설정 ○ 월급 전일 잔액은 비상금 계좌나 자유적립식 예금통장 개설하여 이체(자투리 돈으로 저축액 증대 효과)
생활비통장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통장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지출(용돈, 여가,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다음 달 급여 때까지 생활 - 월급 전일 잔액은 비상금 계좌나 자유적립식 예금통장 개설하여 이체(자투리 돈으로 저축액 증대 효과)

2. 저축통장 관리 제안

구분	금액(만 원)	제안사항
단기 저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금융기관 저율과세 상품(예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은 일정 한도(3천만 원)내에서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하는 저율과세 혜택 제공 - 이자소득세(15.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 혜택은 25년까지이며 단계적으로 세율이 상승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PF 대출여부 확인하여 가입할 것

구분	금액(만 원)	제안사항
중기 저축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도약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만기 : 5년 - 적금방식 :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 - 3년 가입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지원 - 70만 원*5년 납입 시 예상 수령액 4,926만 원 * 납입원금(4,200만 원), 정부 기여금(126만 원), 이자(587만 원),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13만 원)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 관리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 의무 계약기간 : 3년(10년까지 유지 가능)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 근로소득기준 5천만 원 이하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제출(국세청 홈택스 및 거주지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전 금융기관 중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을 권장 - 채권형 ETF(만기 매칭형 ETF)로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 - 현재 보유 중인 저축 금액의 투자처를 고민 중이라면, 만기매칭형 ETF를 거치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장
장기 저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노후준비 자금 마련 - 장기투자 가능하므로 주식형 ETF로 공격적 투자 가능하며,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형 ETF에서 채권형 ETF로 비율 조정 필요 - IRP 및 연금저축계좌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계좌 개설 5년 후부터 가능)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1. 수입/지출 구조 파악을 통한 재무적 자신감 회복

- 상담 후 보험과 통신비 등 고정지출 재검토를 통해 재정에 대한 주도적인 감각을 되찾으면서 재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커짐

2. 목표 중심의 자금 운용 시작

- ‘결혼자금, 주택 구매 계획 등’ 목표를 숫자로 구체화했으며, 예상 수입을 바탕으로 매달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명확해짐
 -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 욕구가 사라지고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형성

상담 후기



재무 상담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 잠시 멈췄던 저의 삶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재무 엔진을 장착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인생의 전환기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이 상담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05 창업 후 독립자금 마련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참여자

- 30세, '25년 연말 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창업 후 독립자금(주거자금) 확보가 1순위 목표
- 현재 수입이 없어 소비지출의 어려움 있음

월수입(계)		월지출(계)		
수입	-	저축	10만 원	
		지출	소비지출	102만 원
			비소비지출	-
자산	총자산(예·적금, 비상금, 펀드)	7,200만 원		
	총부채(부동산 대출, 신용대출)	-		
	순자산	7,200만 원		

▶ 재무 목표

□ 창업 후 주거자금 마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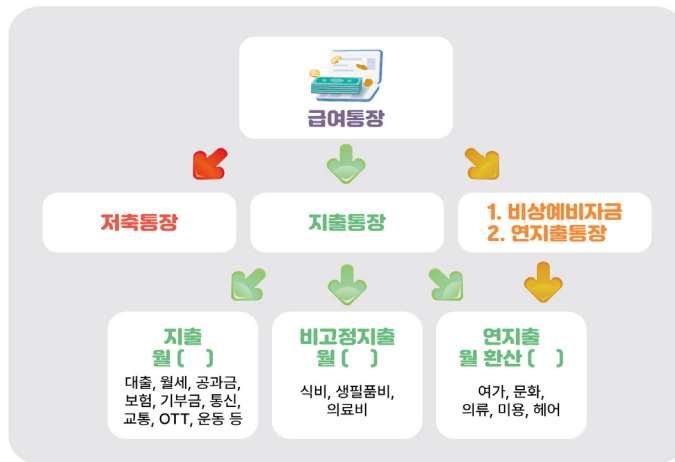
- 필요 나이(32세), 필요액(약 3,000만 원), 월 저축 금액(약 130만 원) 필요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소비지출 구조 파악

- 자산부채 상태표 만들기
- 가계부를 통한 지출 파악 후 통장 쪼개기로 관리
 - 월 소비지출 중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로 나눈 후 통장 쪼개기
 - 연 지출(여가/문화, 쇼핑, 건강, 경조사비 등) 파악하여 매월 일정 금액 모은 후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기
 - 통신비의 경우, 할부 기간 및 약정이 끝나면 알뜰폰 사용하기
 - 지출별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구분하면 가계부 정리하는데 보다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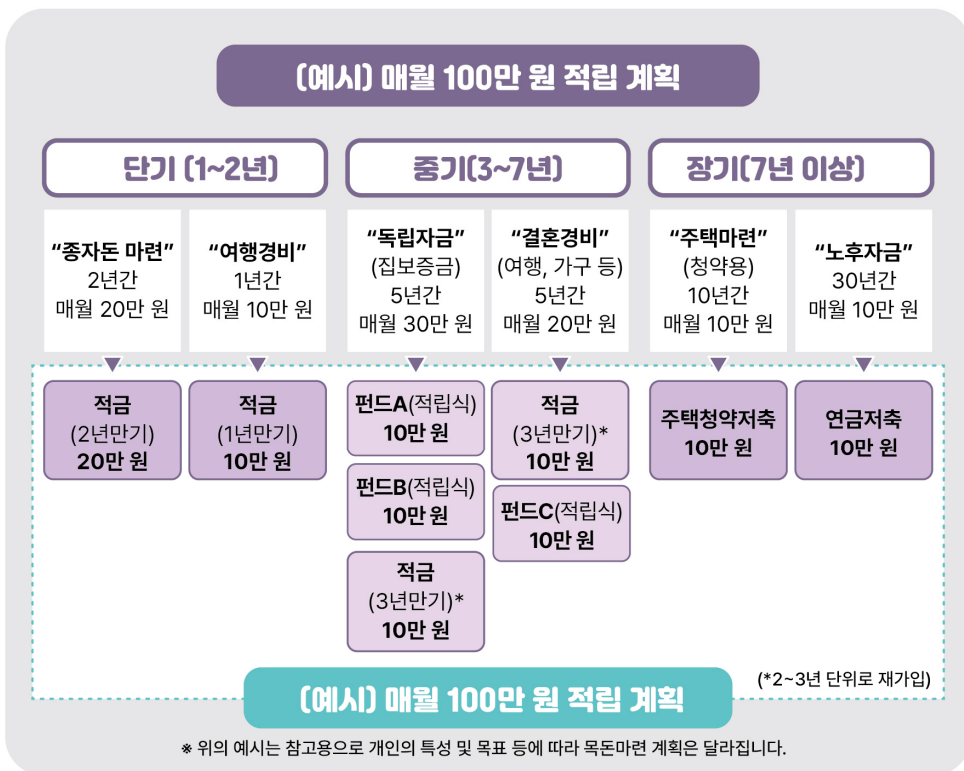
2. 저축, 자산관리 제안

- 청년도약계좌 개설 여부 확인하여 목돈마련 저축하기
- 여행 통장금액(약 2,400만 원)은 CMA 계좌(또는 파킹통장)으로 옮기기
- ISA 계좌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 및 절세 혜택 받기
- 창업 후 예상되는 월수입 350만 원 중 약 200만 원 정도 저축하기
- 비상예비자금 및 연 지출통장은 CMA 및 파킹통장 활용하기
- 투자에 앞서 목돈 마련 우선, 일부 투자를 병행하되 저축 위주로 실행하기
- 연말정산 세제 혜택 계좌(연금저축/개인형IRP)로 노후자금 대비하기

(참고 자료)

〈재무 관련 정보〉

- 재무 목표를 설정하실 때 단기, 중기, 장기적인 자산활용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따른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 본인의 재무 목표를 고민해보시고 재무 목표에 따라 비중을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의 예시 표를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ETF, 펀드 등의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해 소액부터 꾸준히 투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금융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융감독원 연금저축통합공시(<http://fine.fss.or.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적금 가입이 처음인 경우, 하나의 적금에 모든 금액을 하기보다는 20~30만 원씩 쪼개어 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중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부만 해지하고 나머지 적금은 살릴 수 있습니다.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노후준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지금의 소비, 저축, 투자의 습관이 단순히 한 달의 결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안정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이해
 - 단기적인 절약이나 순간적인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를 기준으로 재무 흐름을 잡아 가는 방식으로의 사고 전환
 - 비정기 지출관리, 안전자산과 필요 자금의 구분, 건강과 노후를 고려한 보험 준비 등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실천 시작

상담 후기



이번 상담 경험은 단순히 재무 지식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습니다. 청년 시기에 이런 기반을 다지는 과정은 이후의 선택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 같습니다. 이 경험이 미래로 뻗어나가는 길을 더 명확하게 비춰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06

신혼부부의 지출 및 자산관리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2년 차 신혼부부(30대), 소득관리, 미래 자산증식, 보험설계 등 전반적인 재무 상담 희망

□ 현금흐름표 요약

수 입		지 출	
본인(남편) 월 소득	440만 원	저축	310만 원
배우자 월 소득	320만 원	비소비지출	206만 원
		소비지출	236만 원
		미파악지출	8만 원

□ 자산 내역

자 산		부 채
금융자산	5,000만 원	2억 8,000만 원
비금융자산	1억 2,000만 원	

□ 재무 진단

- 가계수지 58%, 총 부채상환 24%, 총 저축성향 41%, 보장성 보험료 5%로 적정수준
- 비상예비자금이 월 지출의 2배 수준으로 약간 부족

▶ 재무 목표

- 5년 뒤 아파트 추가 매수를 통한 월세소득 발생 및 차량 구매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노후 자금 마련하기

- 은퇴자산 요약
 - 예상 기대수명*: 아내 90세(2085), 남편 90세(2082)
 - * 1차 상담 시 기재한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만 원)

은퇴시점	노후 월생활비	필요기간
2052년(60세)	500만 원	34년
은퇴자산 세부내역		
국민연금	337,296	(아내) 월 122만 원(현재가치) * 26년 (남편) 월 148만 원(현재가치) * 26년
퇴직금/연금	28,614	(남편) 연금 수령 시 월 109만 원 * 31년
개인연금	5,704	연금 수령 시 월 21만 원 * 31년
금융자산	미추정	실제 노후 준비용 자금

- 은퇴자산 점검 결과
 - 준비된 자산(연금)이 필요 생활비(500만 원)보다 부족하므로, 추가 저축 여력 마련 및 수익률 증대 필요
 - 가계부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기
 - 예상치 못한 노후 지출, 금리 및 물가 변화 등으로 필요 자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과 현명한 인출 전략 필요
- 노후 자금 제안사항
 - 1) (부채상환 vs 투자) 우선순위와 효율성에 따라 결정하기
 - 주택담보 대출 조기 상환 시, 심리적 부담과 이자 비용 감소
 - 투자에 활용 시, 화폐가치 하락과 수익률과 대출이율 차이로 인해 효율적 자산 운용 가능
 - 성과급, 퇴직금 등은 일시금(목돈)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월평균 소득에 반영하여 저축·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적립식 투자로 활용할 것을 제안

2) 다층 보장을 활용한 노후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기

-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므로 부부의 공적연금 합산액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부부 모두 공적연금 수령 제안
-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 (아내) 60세까지 납부 + 추후납부(25개월) 시 예상연금액 129만 원(상계월수 105개월)
 - (남편) 60세까지 납부 + 추후납부(31개월) 시 예상연금액 159만 원(상계월수 124개월)
-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노후에는 목돈보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3층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기
- 퇴직급여(퇴직금)를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30%)이 있으며, 나머지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으로 납부가 늦춰져 이자소득세 15.4%만큼 재투자 및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음
- 개인연금 수령

가입 상품	수령 기간	월 수령액	과세여부
연금저축보험	31년(2052~2082)	17만 원	과세
연금보험	31년(2052~2082)	5만 원	비과세

- 연금계좌(개인형 IRP,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운용수익에 대하여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된 세금을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저축펀드/개인형 IRP에서 수령 시 '비정기연금' 방식으로 수령 시 자유로운 인출 가능

3) 증여·상속 장기 플랜 세우기

- 증여공제 한도 활용 : 배우자는 10년에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 원, 혼인·출산 시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 가능
- 가치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
- 증여 시점의 분산 :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 시 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이 포함되므로 증여 시점 분산 필요

- 4) 건강관리가 우선, 보험 또는 의료비 자금으로 대비하기
 -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진료비 월 42만 원(본인 부담금 약 10만 원)
 - 보험 보장 내역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가입 또는 리모델링
 - 예상 의료비(목돈)를 따로 모아두기

2. 목적자금 제안사항

- 재무 목표 : 5년 뒤 아파트 추가 매수를 통한 월세 수익 및 차량 구매
- 제안사항
 - 투자용 주택의 순수익률(임대 수입 대비 유지비용, 공실률, 초기 투자 비용 등을 고려)을 계산해보시고, 발생한 현금흐름을 꾸준히 투자 제안
 - 활동기 이후의 고령층은 임대 부동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안내
 - ISA 계좌 활용하여 소액으로 적립식, 분산, 장기투자 시도 제안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1차 상담 이후 소비생활 부채 잔액을 일시 상환하여 추가 저축 여력 생김
- 재무 상담을 통해 행복한 신혼생활과 노후준비를 병행할 자신감이 커짐

07

맞벌이 가구의 노후 자금 마련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부부 모두 근로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계획 없음
- 월급을 각자 관리하고 있고 따로 모이는 돈이 없어 지출관리 및 소비 습관 점검이 필요하며, 노후준비에 대한 막막함으로 상담 신청

□ 자산/부채 현황

구분		평가금액	월상환금액	비고	
자산	금융자산	주식(해외주식)	9,250만 원		
		채권(미국채권)	3,200만 원		
	부동산자산	주거용 부동산	27,000만 원		
		농지	20,000만 원		
합계		59,450만 원			
부채	부채	주택담보대출	18,300만 원	76만 원	30년/2023-03
		신용대출	1,560만 원	62만 원	5년/2023-03
		자동차대출	2,570만 원	56만 원	5년/2025-01
	합계		22,430만 원	194만 원	

자산	59,450만 원	부채	22,430만 원	순자산	37,020만 원
----	-----------	----	-----------	-----	-----------

▶ 재무 목표

- 노후 월 생활비 500만 원 마련하기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부부간 돈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 설정

- 부부가 되면 내가 번 돈이 가족 공동의 것이 되므로 재무관리에 앞서 돈에 대한 가치관과 방향 설정 필요
- 서로의 돈 가치관을 알기 위해 서로 다음과 같은 질문해보기

- 수입 중 얼마(%)를 저축하고 싶은가?
- 내가 아낌없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예: 취미생활)은? 내 배우자가 지출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 대출에 의존하는 정도는 얼마정도여야 적절하다고 보는가?(차나 주택 구입 시 대출 비중 등)
- 가정경제에서 돈 관리를 담당할 사람은? 부부 한쪽이 전담할 것인가? 공동으로 할 것인가? (예: 지출 관리는 남편이, 금융상품 및 가입 관리는 아내가 전담)
- 모든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매월 대략적인 수입을 공개할 것인가?
- 가계지출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동통장에서 관리, 각자 통장에서 관리)

2. 부부 각자 월수입, 비 정기수입 작성하기

구분	월소득(세후)	비정기수입(연)
남편	360만 원	연 300만 원
아내	360만 원	(작성해보세요)

3. 월 지출액 세부 파악하기(고정, 변동지출)

	구분	남편 월지출	아내 월지출	비고
고정 지출	보장성보험	6만 원	(작성해보세요)	
	통신비(인터넷,ott)	7만 원	''	
	관리비(가스,전기포함)	20만 원	''	
	교통비	30만 원	''	
	대출이자	194만 원	''	
	운동비		''	
	회비,모임비		''	

	적금		"	
	개인연금		"	
	용돈		"	
	합계	257만 원	"	

월	변동지출	남편 월지출	아내 월지출	비고
월 변동 지출	식비/외식비	43만 원	(작성해보세요)	
	생필품비		"	
	직장식비		"	
	합계	43만 원	"	
연 변동 지출	연 변동지출	남편 연지출	아내 연지출	비고
	경조사비	240만 원	(작성해보세요)	
	부모님용돈		"	
	명절선물		"	
	재산세	140만 원	"	
	자동차세		"	
	자동차보험료		"	
	차량유지비		"	
	의류/신발	465만 원	"	
	자기계발/교육비	400만 원	"	대학원 27년까지 예정
	여가/문화/여행	156만 원	"	
	의료비	35만 원	"	
	기타	160만 원	"	
	합계	1,596만 원	"	부부 비정기수입에서 총당 or 매 월모아서 다음 해 사용

- ① 향후 재무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정해보기
 - 부부 돈 관리를 바로 합쳐서 관리하기 어렵다면, 현 상황에서 서로의 월 지출, 연 지출액을 꼼꼼히 점검하여 공유하기
- ② 공동 생활비 한 달 예산 세우기(월 변동지출, 연 변동지출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세우기)
 - 현재 내역에서 불필요한 지출액을 줄이고, 지출예산을 세워 저축액 늘리기
- ③ 통장 쪼개기로 돈 모으는 구조 만들기

4. 부부의 구체적 재무 목표 정하기

- 재무 목표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재무적 목표를 의미
- 재무 목표는 동기부여와 실천 계획을 세우는 기준이 됨
- 목적, 금액, 기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목표 설정 필요
 - 단기 재무 목표: 1~3년 이내 달성 가능한 목표로 안전하고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활용하기
 - 중기 재무 목표: 저축과 투자를 통한 종잣돈 마련하기(ISA계좌, 청년도약계좌 등 활용 추천)
 - 장기 재무 목표: 3층 연금 구조를 통한 노후준비하기(개인연금 적립식·장기투자를 통한 노후 자금 마련)

5. 3층 연금 구조로 노후준비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매년 수령액이 상향되어 실질 가치가 유지되며 종신 지급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객님 예상 국민연금]

구분(기간)	월보험료	총납부 보험료	국민연금 수령액	상계월수 ²⁾
60세까지 의무 납부(374개월)	181,880원 ¹⁾	62,525,860원	793,910원	78

- 1) 월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결정
- 2) 상계 월수는 국민연금 수령이 총 납부 보험료에 도달하는 기준(손익분기점 개념) / 소득공제 및 기타 다른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상기 계산은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므로 향후 국민연금의 제도 변화(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변경, 추납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 참고[3,819,690원 추납 가능(21개월[변동될 수 있음]*181,890원) / 추납은 신청 당시 월보험료로 납부]

구분(기간)	기준소득 월액	월보험료	총납부 보험료	국민연금 수령액	상계월수
60세까지 의무 납부 및 추납(395개월)	2,021,000원	181,880원	66,345,550원	837,910원	79

- 추납 가능 개월 수는 서류 제출 시 변동될 수 있음 (필수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_상세)
-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 '월보험료 x 개월 수'로 계산
- 사업장 퇴사 후 추납 신청 시 월보험료가 줄어들어 추납 금액도 하향
 - ⇒ 현 기준 추납 보험료 21개월 납부 시 월 44,000원 정도 상향 효과
 - ⇒ 1988.1.1.이후 군 복무기간[군인연금가입기간 제외]이 있을 경우 군 복무기간 추납 가능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은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가교 자금의 역할
- 연금으로 수령 시 각종 세제 혜택 부여(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 퇴직연금 수령 형태, 연금 수령 기간 등에 따라 절세규모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인출 전략 수립 필요
- IRP로 수령한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연금 수령한도 내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내 인출(연금 수령)	1~10년차	퇴직소득세 70%
	11년차~	퇴직소득세 60%
일시금,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연금외 수령)	퇴직소득세 적용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단,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세금감면 혜택 없음

- ✓ 연금수령 중에도 이자나 배당수익 같은 운용수익 발생 시 연금의 수명을 연장시킴
- ✓ 사적연금·퇴직연금(연금계좌)은 현재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음

● 개인연금

구 분	연금저축	개인형IRP
가입자격	제한없음	소득이 있는 사람
세액공제한도	600만 원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납입한도	연금저축, IRP 합산 연간 총 1800만원	
세액공제율	연간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4,500만 원) 이하 : 16.5% 연간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4,500만 원) 초과 : 13.2%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5년이상 가입, 10년 이상 수령	
연금수령 시 세금	3.3%~5.5%의 연금소득세(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 이하)	
연금외수령 시 세금	16.5%의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비과세)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수령시 종합과세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6.6~49.5%) 혹은 분리과세(16.5%)중 선택	
중도인출	가능	요건 해당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부득이한사유 해당시 : 연금소득세 부과(3.3~5.5%)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투자제한	없음	주식형 자산은 70%까지만 가능

6. 목적자금(월 생활비 500만 원) 마련 제안사항

- 월 500만 원 정도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최소 부부 각 2억 원씩은 마련되어야 함
 - 부부 각각 월 30만 원 씩 개인연금 납부 제안
(연 평균수익률 7%, 23년 납부 시 약 1.9억 원 마련 가능)
- 주택연금은 부부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종료되는 시점에 활용
- 부족한 노후생활비 약 50만 원 정도는 주식배당금이나 커버드콜로 월 현금흐름을 마련해볼 것을 제안
- 농지(약 2억 원) 활용 방법
 - 농지 연금 활용하여 월 현금흐름 만들기(예: 농지 2억 원, 70세 신청 시 월 85만 원)
 - 농지 매도 시 해당 금액으로 부모님 병원비(약 1억 원)와 월 현금흐름을 위한 배당주 (약 1억 원) 매수로 활용 가능

08

다양한 목적자금 마련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코칭 교육(멘토링) 우수 선정자

- 20대 중반으로 미혼

현금흐름 및 자산

월수입(계)		월지출(계)		
수입	250 만 원	저축	0 만 원	
		지출	소비지출	247 만 원
			비소비지출	3 만 원
자산	총자산(예적금, 비상금, 펀드)	4,500 만 원		
	총부채(부동산 대출, 신용대출)	2,000 만 원		
	순자산	2,500 만 원		

▶ 재무 목표

- 여행자금(1,000만 원) 마련
- 학자금(2,000만 원) 상환
- 결혼자금(1억 원) 마련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비상예비자금 마련하기

- 소득 중단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재원으로, 500만 원 권장
- 적합 상품: 파킹통장 또는 CMA 계좌

2. 부채 관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 26년 초 입사자라면 27년부터는 상환의무 발생 될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20%인 400만 원 이상 의무 상환 필요. 현재 소득 규모와 교육비 세액공제(원리금 상환액의 15%)를 고려할 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상환하기보다는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부터 일부 원금 상환을 권장.

3. 지출관리

- 고정지출의 세부 항목 파악 및 지출 감소를 통해 저축 자원 마련
 - 생활비 세분화 및 절감: 현재 총액으로만 관리하던 지출을 항목별로 세밀하게 나누어 파악하기를 권장.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지출을 잡기 위해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일주일 단위로 예산을 나누어 관리할 것을 권장. 총 생활비를 월 80만 원으로 절감하여, 월 40만 원 이상의 저축 재원을 마련하기 권장.
- 정책 지원을 통해 현재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절감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제도 및 임대주택 정보 파악하기. 특히 '청년월세지원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의 실질적인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청년안심주택 등의 임대주택으로 주거지를 확보하면 주거 안정성과 주거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음.
- 보험 재조정
 -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20%로 사회초년생의 적정보험료는 소득의 8~10% 내외인 20~25만 원 수준. 보장은 유지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감액

하고, 사망으로 인한 소득감소 위험 보장하는 종신보험이 아닌지 등을 점검하기 제안.

· 종신보험 → 정기보험으로 전환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청년에게 '사망 시 지급'되는 종신보험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임. 평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대신 경제활동시기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변경 시 사망보장은 유지하면서 월 보험료를 10~15만 원 이상 절감 가능.

· 보장 종료 항목 보완 (유병자 보험 또는 부담보 설정 일반 보험)

2년 전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아 해당 특약이 소멸하였다면, 해당 항목 보완 필요. 일반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간편고지(유병자) 보험'을 검토해야 하며, 2년 전 질병이 '3대 질병(암, 뇌, 심장)' 관련이라면, 해당 부위를 제외한 부담보 설정이나 보험료 할증을 통해 진단비 확보 필요.

4. 저축과 투자 - 정책 상품과 청년우대 제도 적극 활용

● 상호금융 저율 과세 활용

- 일반 은행 예금은 이자에서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 징수 하지만, 상호금융(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조합원(또는 준조합원)이 되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고 나머지 세금은 면제 (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1인당 3,000만 원, 예탁금 기준)



청년우대 금융상품 활용

청년미래적금 개요

- 목적 : 청년들의 초기 목돈마련을 효과적으로 지원
- 대상 : 일정소득 年7,5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 기여금은 年6,000만 원 이하 지급
- 구조 : 만기 3년, 월 최대 50만 원 납입(자유적립식)
- 최대수령금액 : 원금 최대 1,800만 원 납입 시 2,00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금리 5% 가정 시 · 일반형 2,054만 원 : 1,800원금 + 108기여금 + 146이자
· 우대형 2,170만 원 : 1,800원금 + 216기여금 + 154이자

금리 6% 가정 시 · 일반형 2,082만 원 : 1,800원금 + 108기여금 + 174이자
· 우대형 2,197만 원 : 1,800원금 + 216기여금 + 181이자

- 세제 혜택 :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미래적금 성실 납입자에 대한 신용점수 가점 부여 추진

- 투자 포트폴리오 재구성 및 효율화 전략
 - 자산의 전략적 재배치 & 시장 지배적 투자 (Index ETF 적립식 투자)
 - 현재 마이너스 수익인 종목들을 정리하여 더 높은 확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제안
 - 개별주식 투자보다는 ISA계좌를 활용하여 전 세계 우상향의 상징인 지수 추종(ETF) 투자 권장.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시장 지수 ETF는 시장 전체의 성장을 내 자산으로 흡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불러 나가는 '적립식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낮추고, 복리의 마법을 실현하는 안정적인 투자 구조를 확립하시길 권장.

5. (2026년~2036년) 10년 재무 목표 달성 로드맵

(① 2028년 여행자금 마련, ② 2029년 학자금 상환 ③ 2036년 결혼자금 마련)

구분	2027년 (1년 후)	2028년(2년 후)	2029년(3년 후)	2036년 (10년 후)
금융상품	예금(저울과세) 만기 수령	예금(저울과세) 재예치 및 만기 수령	ISA 계좌 및 청년미래적금 만기	월 83만 원 이상 저축 및 투자
자산	2,588만 원	2,165만 원	3,708만 원+(수익)	목표 13,180만 원
지출 및 목표 달성	학자금 500만 원 상환	여행자금(1,057만 원) 마련 학자금 500만 원 상환	학자금 1,000만 원 상환(완납)	결혼자금 마련
현금 흐름	잔액 2,088만 원	잔액 708만 원 → ISA 추가 납입	순자산 약 3,000만 원 (ISA 투자자금 포함)	

[1단계] 부채 상환 및 종잣돈 기초 다지기 (2026년~2028년)

■ 2026.02 : 투자 체질 개선 및 자산 배분

- ▶ 투자 전환: 개별주식(1,000만 원) 청산 후 중개형 ISA 계좌로 전액 이체
- ▶ 유동성 확보: 비상예비자금 500만 원 (CMA 예치)
- ▶ 안전자산: 2,500만 원 상호금융 예금 가입 (1년 만기 3.6%, 저울과세 활용)
- ▶ 적립식 저축: 청년미래적금 가입 (월 50만 원 / 3년 만기)

■ 2027.02 : 1차 부채 상환 및 재예치

- ✓ 자금 회수: 예금 만기 수령 (약 2,588만 원)
- ✓ 부채 상환: 학자금대출 일부 상환 (500만 원)
 - ▶ 재투자: 잔액 2,088만 원 재예치 (1년 만기, 저울과세)

■ 2028.02 : 목적 자금 운용

- ✓ 자금 회수: 예금 만기 수령 (약 2,165만 원)
- ✓ 지출 실행: 여행자금 확보(1,057만 원) 및 학자금 추가 상환(500만 원)
 - ▶ ISA 납입: 최종 잔액 708만 원 ISA 계좌에 추가 납입

[2단계] ISA 만기 및 부채 Zero 달성 (2029년)

■ 자산 상태

- ✓ ISA 만기 자금: 약 1,708만 원 + α (투자 수익)
- ✓ 청년미래적금 만기: 약 2,000만 원 수령

■ 핵심 실행 과제

- ▶ 부채 청산: 학자금 잔액 1,000만 원 전액 상환
- ▶ 재진입: ISA 계좌 재가입을 통한 절세 혜택 연속성 유지
- ✓ 결과: 순자산 약 3,000만 원 확보

[3단계] 결혼자금 마련 집중 투자 (2029년~2036년)

■ 최종 목표액: 1억 3,180만 원 (물가상승률 2.8% 반영 시 현재 1억의 10년 후 가치)

■ 세부 실행 전략

- ▶ 기존 자산 운용: 초기 자본 3,000만 원을 8년간 운용 (연수익률 4% 가정)
→ 2036년 말 예상 가치: 약 4,105만 원
- ▶ 추가 저축 계획: 부족분(9,076만 원) 확보를 위한 적립식 투자
[월 83만 원] 씩 92개월(7년 8개월) 동안 저축 및 투자 (연수익률 4% 가정)
- ✓ 기대 효과: 2036년 말, 목표한 1억 3,181만 원 달성

노후준비
우수 상담사례집

PART
02 중장년층(40~50대)



01

소상공인의 노후 자금 마련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 1인으로 동생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 운영 관련 매입 및 매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시로 사업자 대출을 통해 물건을 매입하여 사업 운영 중
-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 준비 자산이 전혀 없어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 신청

자 산		부 채	
예금	2,000만 원	학자금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회 (대출용)	1,800만 원	사업자 대출	5,125만 원
청약저축	600만 원		

수 입		지 출	
사업소득	455만 원	저축	10만 원
		식비/외식비	100만 원
		교통비	9만 원
		통신비	7만 원
		의료비	6만 원
		주거/용품비	32만 원
		용돈	40만 원
		비소비 지출	205만 원
		미파악 지출	46만 원

▶ 재무 목표

-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생활비 마련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재무관리

- 사업자 통장과 본인 생활비 통장을 분리하여 지출관리
- 사업을 위한 투자 목표와 본인을 위한 투자 목표는 분리하여 수립 후 시행



- 노란우산공제회는 퇴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 대비 상품이므로, 대출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지양하고, 소상공인 지원용 대출 이용 필요

2. 노후준비

- 현재 준비된 노후 자금은 27,216만 원으로 노후에 필요한 113,017만 원보다 85,802만 원 부족
- 노후 생활비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기타 주택연금 등 3종류 이상의 연금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 국민연금

- 평생 지급되며, 수급 시 물가변동률이 반영되므로 최대한 수급액을 늘리기를 권고
- 현재 65세부터 수령 할 예상 연금액 월 50만 2천 원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납을 할 수 있으며, 최대 납부가능한 개월 수 119개월을 납부한다면 예상 연금액은 월 67만 8천 원까지 상향 가능
- 본 제안서에서는 노후 월 생활비의 50%는 공적연금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추납 119개월 납부 후 2026년 7월부터 보험료를 상향하여 65세까지 납부를 가정하여 설계
- 제안대로 납부가 된다면 예상 연금액은 월 100만 6천 원을 수령 가능

2) 개인연금

- 퇴직금 준비가 부족하니, 개인연금상품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마련 필요
-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납입단계에 세액공제(연간 900만 원 한도에서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혜택도 있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할 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운용수익에 대하여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 본 제안서에서는 개인연금을 65세까지는 월 60만 원 불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노후 자산 규모의 증액 및 납부 여력 등을 고려하여 불입할 금액은 증액 가능

3) 기타

- 현재 기준으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노후 자금보다 45,679만 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60세 이후 10년 정도 추가로 소득 활동 필요
-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주택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제안
-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보험은 준비하셔야 하니, 의료예비비 통장 마련이나 실비보험 가입 고려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국민연금 지사 내방하여 추납 119개월 신청 후 7월 정기결정에 월보험료 상향 예정
- 본인과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동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 후 불입 예정
- 사업자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 및 지출 예정
- 현재 가입한 보험이 전혀 없어 실비보험 가입 고려

02

부부가구의 건강, 여가, 대인관계 개선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부부가구
- (건강) 건강군 비실천형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고혈압이 있음
- (여가) 활발군 비실천형
취미활동이 딱히 없고, 뭔가를 해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
- (대인관계) 사회관계망이 작은 친밀형
소극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임은 없음. 대인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 편이고, 자신이 없음

▶ 영역별 목표

1. 건강
 -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 불면증 극복하기
 - 꾸준한 운동 시작하기
2. 여가
 -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취미활동 경험해보기
 - 문화센터, 도서관 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강좌 수강하기
 - 은퇴 이후 여가 활동으로 연계해보기
3. 대인관계
 - 부부 관계 개선하기
 - 소극적인 대인관계 개선하기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건강관리

- 40대부터는 근육운동이 필수임을 설명
 - 아파트 피트니스 센터에서 주 2회, 30분 이상 근력운동하기
-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수면 습관 만들기(잠자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따뜻한 차 마시고 명상하기)
- ‘국민체력인증 100’ 사이트 접속하여 체력 검증 예약. 검증 후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 처방받기

2. 여가 관리

-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나에게 맞는 여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노년에 여가를 잘 즐겨서 ‘액티브 시니어’가 되실 것을 안내
- 정적인 활동을 희망하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 거주지 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강좌를 함께 검색하여 캘리그래피 강의 추천

3. 대인관계

- 부부 동호회 활동 검색하기 (지역 카페 등 동호회 검색 방법 안내)
- 부부 함께 주 2회 이상 산책하고 대화의 시간 갖기
- 정기모임 만들기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가능함을 안내)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소개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1. 건강관리

- 주 2회 근육운동으로 피로, 스트레스, 불면증이 완화되고 의욕이 생김
- 근육 없는 노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자각. 근테크 열풍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2. 여가 관리

- 캘리그래피 강의를 수강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수업시간이 굉장히 기대됨. 노년에도 캘리그래피 취미를 지속하고 싶고, 재능 기부 의사가 생김
- 평생학습관, 도서관 교양프로그램도 신청하고 기대하고 있음

3. 대인관계

- 부부 함께 러닝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처음엔 동호회 활동이 쑥스러웠으나 소속감을 느끼게 되어 만족
- 부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지고 관계가 개선
- 지역아동센터 학습 지원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자원봉사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게 되고, 활동에 보람을 느낌

03

자산 배분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30년 이상 직장생활 중, 은퇴를 2년 앞둔 단독가구로 성인 자녀 있음
- 은퇴 활용자산 : 주택 5억 원, 금융자산 약 5억 원
- 일반위탁계좌 비중이 높았으며 ISA, 연금저축펀드, IRP 모두 한도만큼 납부
- 은퇴 후 여가 활동에 대한 고민

자 산	
예금	9,170만 원
CMA	621만 원
주식	34,702만 원
펀드	14,730만 원
주거용 아파트	50,000만 원

▶ 재무 목표

- 노후 월 생활비 마련(350만 원)
 - 물가상승률 3%, 투자수익률 4%로 반영 요청
- 은퇴 후 여가 활동 필요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 노후준비를 위한 4층 연금제도

- 저축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노후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노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금 자산은 가능하면 다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①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공적연금이고, 여건에 따라 ②퇴직연금, ③개인연금, ④주택(농지)연금 등을 이용하여 노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1. 국민연금(1층)

-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임. 장래 장수위험을 대비하여, 노후에 원활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가 유지되면서 종신 수령이 가능하므로 노후준비에 효과적임.
- 고객님은 만 64세(2031.1월) 도달 후 연금 수령(2032.2월) 가능
- 현재 사업장가입자로 월 보험료 573,000원 납부 중이며, 반납으로 가입기간 61개월 추가 충족
- 만 60세(2027.1월)까지 꾸준히 납부 시 가입기간 383개월이 충족되며, 예상연금액은 세 후 약 155만 원 상당.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예상연금액 증액 추천.
- 현재 유족연금 수급 중이며 중복조정 대상자로, 본인연금 선택 시 본인연금+유족연금 30% 지급
 - * 추후납부제도: 추납 가능 개월 수만큼 추납 신청 당시 보험료로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 *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 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 시 가입 가능.

- 추납 활용하기

구분(기간)	기준소득월액	월보험료	총납부 보험료	연금 수령액	상계월수
60세까지 의무 납부 및 추납(395개월)	6,370,000원	573,300원	114,794,040원	1,604,180원	70

-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기

구분(기간)	기준소득월액	월보험료	총납부 보험료	연금 수령액	상계월수
64세까지 임계 납부(431개월)	3,500,000원	315,000원	114,709,440원	1,630,450원	69
은퇴 후 임계 37개월 납부(420개월)	1,000,000원	90,000원	111,244,440원	1,602,460원	68

※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26년부터 보험요율이 9%에서 0.5%씩 8년간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매년 예상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또한 물가, 전체 가입자의 소득, 본인 소득, 미납 여부, 중복급여 조정, 정책 변경 등 여러 변수에 의해서도 예상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2층)

- 고객님의 회사는 퇴직금 제도 채택 중임. 과거 중간 정산을 두 번 받으셨으며 최근 임금피크제 사유로 중간 정산 받은 9,247만 원 상당이 퇴직형 IRP에 적립되어 있으며, 1~2년 이내에 자녀 결혼자금으로 쓰일 예정.
-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제도를 활용

퇴직소득세 계산의 특징

근속연수
길수록 유리

연분연승,
근속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금
중간정산시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가
계속 근로기간

합산특례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금액 + 기간합산

근속기간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산정하고,
과거 중간 정산했던 퇴직금까지
합산하여 총퇴직금을 계산

전체 퇴직소득세 계산 후
이미 중간 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차감

-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기간에 따른 퇴직소득세 비교 필요. 일반적으로 중간 정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따져 중간 정산 특례 여부 결정 권장.

※ 인출 전략 Tip

- IRP로 수령한 퇴직급여는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시)

연금 수령한도 내 인출(연금 수령)	1~10년 차	퇴직소득세 70%
	11년 차~	퇴직소득세 60%
일시금, 연금 수령한도 초과 인출 (연금 외 수령)	퇴직소득세 적용	
연금 수령한도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계좌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3. 개인연금(3층)

- 고객님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
 - 현재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에 연 900만 원을 납부 중이며 남은 2년간 연금 납부 한도인 1,800만 원 적립 예정
 -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에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간수령액 1,500만 원 한도를 공유함.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의 금액은 인출이 자유로움.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는 연금소득세(3.3%~5.5%)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은 비과세(수익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됨.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계좌는 서로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어 2개의 계좌로 따로 관리해야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음.
 - 운용자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세액공제 받은 계좌를 합칠 수 있음.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이 훨씬 수월해져 포트폴리오 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유연한 인출 계획 수립 가능. 한 계좌에 있으니 총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액 이전만 가능하며 모든 금융상품은 현금화되어 이전되는 점을 주의해야 함.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 종류

연금 종류		한도적용	비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X	
퇴직 연금	퇴직금	X	
	본인 추가납입액	○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개인 연금	연금저축	○	
	舊개인연금	X	
	연금보험	X	

- 고객님의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세제비적격 연금은 수령 시 세금이 0원이라는 장점이 있음. 은퇴 후 생활비 중 일부를 이런 비과세통장에서 인출하면 세금이 전혀 붙지 않아 현금 흐름 극대화 가능.

4. 주택연금(4층)

- 자산의 연금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가능
-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 주택연금의 장점: 부부 둘 다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며 연금 수령 가능, 부부가 사망한 후 차액 상속 가능
- (예시) 7억 원의 주택으로 만 70세부터 주택연금 수령 시 월 208만 원(만 65세는 169만 원)의 현금 흐름 확보 가능. 사망한 후에는 연금 지급총액보다 주택 처분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정산됨.

□ 월 노후 생활비(350만 원) 마련 방안

- 노후 활용자산 현황

자산 유형	평가금액	핵심 전략
과세계좌(위탁+비상금+정기예금)	34,924만 원	예금 및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
절세 계좌(ISA+개인형IRP+연금저축(보험,펀드))	16,972만 원	퇴직금 이체 및 안전자산 운용
비과세 계좌	4,887만 원	은퇴 초기 생활비로 최우선 활용
퇴직금 IRP	9,247만 원	자녀 증여 예정

-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자산 활용 제안
 - 퇴직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나, 위탁증권계좌나 정기예금과 같은 과세 재원을 활용하여 증여함으로써 과세 계좌 규모를 줄이고 퇴직금의 세금 감면 효과를 온전히 보존할 것을 제안.
 -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퇴 후 실업급여 9개월 이후인 28.10~31.1)에 퇴직금은 연금 형식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고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걱정 해소 가능. 또한 이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는 비과세 연금 자원을 먼저 최대한 활용하고 나서 과세 자원을 늦게 활용하시면 70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세가 4.4%로 줄어들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예비 비상자금을 파킹통장과 CMA 계좌에 모으기
 - 현재 1,000만 원을 파킹통장 및 IRP 등에 보유
 - 예상치 못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예비자금(60대 적정 규모 : 월평균 지출액의 6배)을 마련해야 함. 입출금이 쉬우면서도 단 하루를 맡기더라도 이자가 붙는 CMA(증권사), 파킹통장(은행) 활용할 것을 제안.

- 은퇴 후 여가 활동 자료 제공
 - 거주지 주변 시립도서관과 국립도서관 강의 신청 방법과 시민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진행 상황을 캡처하여 제시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유튜브나 주변 분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가입 후 납부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인출 방법을 몰라 은퇴를 앞두고 막막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04

노후 생활비 마련 및 대출금 상환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27.6월 명예퇴직 예상: 명퇴금 2억 4천만 원(세후) + 퇴직금 2억 2천만 원
- 퇴직 후 바로 개인택시 희망: 개인택시 준비금: 2억 원 예상
- 개인택시 준비금은 명퇴금 또는 퇴직금에서 충당, 이후 목돈 불필요
- 택시 수입은 8~9시간 근무 시 세후 약 350만 원 정도 예상

□ 소득 및 지출

- 남는 금액 중 저축 포함 110만 원
- IRP 계좌는 현재 200만 원 납부, 월 15만 원 불입

□ 자산 및 대출

-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 1대
- 3년 전 아파트(구축, 40평) 담보대출 1억 8천 받음
 - 월 110만 원 상환 중이며, 2026년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현재 잔액 및 납입원금 확인 불가하여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로 확인
 - 3년 납입 후 잔액 : 약 1억 6천 1백만 원(37회차)

▶ 재무 목표

- 월 노후 생활비 400만 원 마련
- 아파트 대출금 상환하기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월 노후 생활비(월 400만 원) 마련 방안

□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 확보하기

- 27.6월 명퇴 시까지 회사에서 납부, 이후 만 65세까지 개인적으로 납부(86개월)
 - 연기 연금까지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이득
 - 27.7월부터 34.08월까지(만 65세까지) 월 9만 원 납부 시 예상 연금액 180만 원
 - 월 31만 5천 원(택시 소득 350만 원)으로 납부 시 예상 연금액 190만 원
 - 월 55만 5천 원(현재 상한액)으로 납부 시 예상 연금액 200만 원
- 명퇴 후 개인택시 소득 발생
 - 해당 소득으로 만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 시 보험료
※ $315,000 \times 86 = 27,090,000$ 원

□ 명퇴 시(27.6월) 현금흐름 확보 전략

- 아파트 대출은 전부 상환 시 소비에서 100만 원은 제외, 실제 필요한 현금: 300만 원
- 개인택시 소득 350만 원으로 노후 생활비 충당 가능

□ 만 65세까지 현금흐름 확보 전략

- 명퇴 후 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자산
 - IRP 계좌 620만 원(현재 200만 원+15만 원*28개월)
 - 퇴직금 잔액: 1억 4천 5백만 원(IRP 계좌)
 - 퇴직금 잔액은 IRP 계좌 안에서 예금상품 가입. 단,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도 가능하지만 은퇴를 앞둔 상황이라 최대한 안전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고
- 예금, 적금 위주의 전략
 - IRP 계좌 추가 납입
 - ISA 계좌 가입 후 예·적금 가입
 - ISA 계좌는 3년 의무가입이지만 3년간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복리를 활용할 수 있음
 - ISA 3년 만기 후에는 IRP 계좌에 불입하여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 (예시) 택시 사업 소득 중 70만 원 정도 저축 시 (IRP: 20, ISA: 50)
 - 명퇴부터 만 65세까지 86개월이 남음
 - 86개월 × 70만 원: 6,000만 원

- 만 65세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
 - 택시 번호판 판매: 1억 2천만 원
 - 남은 퇴직금: 1억 7천 8백만 원(1억 4천 5백을 IRP 계좌에서 계속 예금 3%로 가입 시)
 - 개인 IRP 불입금: 620만 원
 - 총 약 3억 400만 원(명퇴부터 만 65세까지 모은 금액은 비산입)

- 만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간 소득 흐름
 - 국민연금 수급: 180만 원
 - 총 개인연금을 25년간 수령 시 월 120만 원 확보

2. 아파트 대출 명예퇴직 시 전액 상환하기

- 연 4.4% 금리보다 낮은 적금으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대출 금액을 먼저 갚는 것이 이득
 - 중도상환 수수료가 25년에 끝나므로, 26년부터 대출 상환액을 최대로 갚는 것이 유리

- 제출해주신 가계부에 따라, 남은 금액 110만 원 전부를 대출 상환에 활용
 - 적금 35만 원도 대출 상환에 활용
 - 110만 원*28개월: 3,080만 원

- 현재, 1억 8천을 20년 납부로 원리금 상환으로 대출할 경우(4.4%)
 - 3년 경과 시 원금 약 1억 6천 1백만 원(37회차)
 - 27.6월까지 28개월 경과 시 원금 약 1억 4천 5백만 원(65회차)
 - 26년부터 남은 금액 추가 상환 시 원금 약 1억 1천 4백만 원

- 남은 1억 1천 4백만 원은 퇴직금으로 상환
 - 명퇴금 2억 4천만 원 중 4천만 원 상환(택시비 2억 원 제외)
 - 퇴직금 2억 2천만 원으로 남은 금액 상환

- 상환 후 퇴직금 대략 1억 4천 5백만 원
- ※ 퇴직금 절세 전략
 - IRP 계좌에 이체, 이후 연금 개시를 하고 전액 인출하는 것이 퇴직소득세 납부 후 목돈 찾는 것보다 세금 100만 원 이상 절약 가능
 - 예시) 명퇴금(세후 2억 4천만 원) 중 세금은 3천만 원, 이중 연금 개시를 하면 계좌 연 인출 한도만큼은 퇴직소득세 70%만 납부
 - ※ 연 인출 한도: $120\% \times \text{연금 계좌의 평가액(퇴직금 평가액)} / (11 - \text{연금 수령 연차})$
 - ※ 연금 수령 연차는 IRP 5년 이상 가입 시점 혹은 55세 도달 시점 중 최근 일자로 1년차 계산.
 - 단, 13.3.1. 이전 DB 퇴직급여 가입자는 6년 차로 계산
 - 1) 2억 7천만원 / (11-3) × 120% = 33,750,000원
 - 2) '13.3. DB 퇴직급여 가입자 : 2억 7천만 원 / (11-8) × 120% = 108,000,000원
 - 1)과 2)의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는 70%만 부과
 - 퇴직금 2억 2천만 원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여 절세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내담자가 공단의 재무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직장동료가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만족도가 높아 추천해줌
- 개인연금 계좌와 ISA,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유익한 상담이었다고 함

05

자녀 독립자금 마련과 부채 상환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배우자와 이혼으로 딸과 함께 생활 중
-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약 2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
- 노후 생활비 약 210만 원 희망

자 산		부 채	
예금	500만 원	주택담보대출	25,000만 원
CMA	1,000만 원	신용대출	4,000만 원
청약저축	200만 원		
적금	330만 원		
저축성보험	500만 원		
주식	2,500만 원		
주거용 아파트	13,000만 원		
투자용 아파트	4,000만 원		

▶ 재무 목표

- 노후 월 생활비 210만 원 마련
- 자녀 독립자금 10,000만 원 마련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노후 월 생활비 마련 방안

□ 저축을 위한 마인드셋(MINDSET)

- 소비 여력에 대한 기준을 현재 총소득이 아닌 주요 소득원(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잡을 것을 권장
 - 고객님의 총소득 : 415만 원
 - 근로소득 240만 원 + 임대소득 55만 원 + 기타소득 120만 원
 - 주요 소득원 외의 다른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 자산을 모아가시는 것을 권장

□ 저축 여력 향상을 위한 지출조정

(단위 : 만 원)

구 분	월 지출	제안 금액	제안 사항
저축	110	7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 여력 70만 원 - (적금 또는 채권ETF) 40만 원, (저축성 보험) 10만 원, (연금저축) 20만 원 - 단기 저축 40만 원은 비상예비자금(CMA 계좌)으로 신용대출 상환 마무리 후 저축 시작
가구 간 이전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지출 - 계좌분리보다는 저축 여력을 높이고, 비상예비자금에서 충당
부채 상환	40	14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출 잔금 4,000만 원(8년 4개월) -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 중도 상환하여 상환 만기 시기 단축 - 투자용 아파트의 월세가 떨어질 경우에는 처분하여 대출 상환하는 방법 고려 ● 신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약 2억 5천) - (대출금 2억 5천만 원) 금리 2.5%, 상환기간 30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 가정 시 매월 987,802원 납부
식비·외식비	70	-	
주거용품비	30	-	

구분	월 지출	제안 금액	제안 사항
교육비	-	-	
의료비	-	-	
교통비	15	-	
통신비	25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알뜰폰 통신사로 변경(요금제 3만 원 이하) ● 향후 기기변경 시 자급제 폰 구입
여가/문화	50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횟수 줄이기(5회 → 2회)
보장성 보험	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는 급여의 8~10% 이내 ● 자차 보유 시 운전자보험 필수 ● 보험료 완납 일자를 확인하여 저축 여력 수시 체크
미파악지출	15	0 (▼15)	
총계	415	240	

□ 기존 신용대출 조기 상환하기

- 조기상환 시 40만 원 추가 저축이 가능하여 약 110만 원 저축 시 중기 저축(ISA 계좌) 50만 원, 장기 저축(연금저축계좌) 50만 원으로 나누어 저축하는 것을 권장

□ 3층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 자금 마련

1) 국민연금(1층)

- 고객님의 예상 수급 시기(2049년 1월)
- 조기노령연금은 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음
(월 0.5% 감액, 최대 30% 감액)
- 연기노령연금은 수급 시기를 늦추는 대신 연금액이 증액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음 (연 7.2% 증액, 최대 36% 증액)
- 고객님의 예상 연금액(25.2.24. 조회 기준)

구분	기준소득월액	연금수령시기	예상 연금액	상계 월수
60세까지 의무가입	3,154,000원	2049.1.	1,028,350원	90
60세까지 의무 납부하고, 추납보험료까지 납부할 경우	1,900,000원 (추납보험료)	2049.1.	1,060,010원	89

2)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

- 퇴직금 원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하여 주며, 10년 초과 수령분부터는 40%의 세금 감면. 퇴직연금에 있는 금액이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신청을 한 후에 1년에 만 원씩 10년간 인출을 할 경우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퇴직금을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예치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 수령 가능하며, 수령 시기는 본인이 선택 가능.
- 연금수령한도 =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120%
- 인출 순서 : 1)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2) 퇴직금 원금, 3)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원금(사적연금 해당), 4) 운용수익(사적연금 해당)
-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사적연금 1,500만 원 이상 인출 시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15.4%) 중 선택을 해야 함을 주의
-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에 연 한도금액인 1,800만 원까지 불입할 계획이시면 연금저축계좌를 추가로 만들어 세액공제 받을 계좌와 받지 않을 계좌로 구분하여 불입하는 것이 좋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 번에 인출하더라도 과세되지 않아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단, 수익금은 제외)

※ 개인연금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연간 납입액		공제대상액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IRP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	600만 원	16.5% (지방세 포함)	99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148.5만 원
	-	900만 원	900만 원		148.5만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	600만 원	13.2% (지방세 포함)	79.2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118.8만 원
	-	900만 원	900만 원		118.8만 원

-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개설하여 각각 600만 원(월 50만 원)과 300만 원(월 25만 원)을 꾸준히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49.5만 원(118.8만 원)의 세금 환급.

- 60세까지 꾸준히 불입할 경우
 - 절세되는 세금 : 149.5만 원(118.8만 원) × 20년 = 2,990만 원(2,376만 원)
 - 가입자 부담금 : 900만 원 × 20년 = 18,000만 원 + @

3) 주택연금

- 올 7월에 입주할 아파트를 보유하여 65세 때 주택연금 신청 시 매달 96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됩니다. 단,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연금으로 먼저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고객님의 3층 연금 현황

구 분	예상 금액	비 고
국민연금	1,028,350원	만 65세 수령 시
퇴직연금	400,000원	65세 ~ 75세(개시시점 선택 가능)
주택연금	960,000원	만 65세 가입 시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중기 저축 용도로 중개형(증권사)/신탁형(은행권)/일임형(증권사, 은행권)에서 가입 가능
 - 일임형은 수수료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
 - 아래 내용은 중개형으로 개설했다는 가정하에 작성
- 의무 계약기간 3년으로 이자/배당소득세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적용
 - 예를 들어, 3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경우 일반계좌와 ISA 계좌의 세금 비교

구 분	일반계좌	ISA 계좌
이자소득세(15.4%)	462,000원	감면
분리과세(9.9%)	-	99,000원

- ETF 매매차익 및 배당금 과세 여부

구 분	매매차익	배당금
국내상장해외 ETF	배당소득(15.4%)	배당소득(15.4%)
국내주식형 ETF	비과세	
채권형(혼합형) ETF	배당소득(15.4%)	

- ISA에서 장기투자 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 미국지수추종 ETF(S&P500, 나스닥 100, DOW 등 지수별 특징 안내) / 주식 혼합형 ETF / 채권혼합형 ETF / 채권형 ETF
 - 월 20만 원씩 적립식으로 은퇴 나이가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비중(40대 6:4, 50대 5:5, 60대 4:6)을 높여갈 수 있도록 권장

2. 자녀 독립자금 마련 방안

- 저축 제안 금액 70만 원 중 연금저축계좌에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을 8년간 저축할 경우 약 4,800만 원 + 이자 및 배당 저축 가능
- 부족한 금액은 투자용으로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 시세 기준 약 4,000만 원 확보하여 총 약 9,000만 원 확보 가능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내담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교육 담당자)으로 주변 동료들에게도 재무 상담을 소개하여 추가로 7명 정도 소개받아 상담 진행함

06

은퇴 후 필요한 비상예비자금 마련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부부 모두 공무원 재직 중
- 전반적인 노후준비 방법에 대한 문의(주거, 연금, 세금 등)
- 현 30년 이상 된 현 주거와 이사에 대한 고민과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토로

자 산		부 채	
퇴직수당(남편)	8,300만 원	자녀 학자금대출	3,070만 원
퇴직수당(아내)	11,600만 원		
비상금	450만 원		
공제회 예금	25,500만 원		
주식	28,000만 원		
아파트(부부 거주)	40,000만 원		
아파트(부모님 거주)	9,000만 원		

▶ 재무 목표

- 은퇴 후(62세) 신규 주택 매수 고려
- 노후 비상금(3억 원) 마련하기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은퇴 후 거주할 신규 주택 매수

□ 현 보유 주택 상황 고려

- 현재 1가구 2주택(본인 거주, 부모님 거주)이므로 양도소득세 발생
- 기존주택 1채는 매도 혹은 증여 필요
- 신규 주택 매수 전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모님 거주)부터 매도 필요
 - 본인 거주 주택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2억) - 6천(장기보유공제 30%) = 1억 4천(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
- 만약, 기존 주택매도 없이 신규 주택 매수 시에는, 향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점 주의

2. 노후 비상금(3억 원) 및 노후 월 생활비 마련

□ 노후 목표 제안 [비상금, 현금흐름(3층 연금)]

1) 비상금 3억 원 마련 방안

- 의료비 : 약 1.5억 원
 -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생애 의료비는 1억 2~5천만 원 수준이며, 이 중 대략 70%는 65세 이후에 쓰이는데, 보수적으로 본다면 1인당 1억 정도 필요
 - 가입된 보험을 함께 고려하여 필요 의료비상금 설정
- 자녀 증여용 : 약 1억 원
 - 자녀 비상예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펀드 운용 제안
- 기타 비상금 : 약 0.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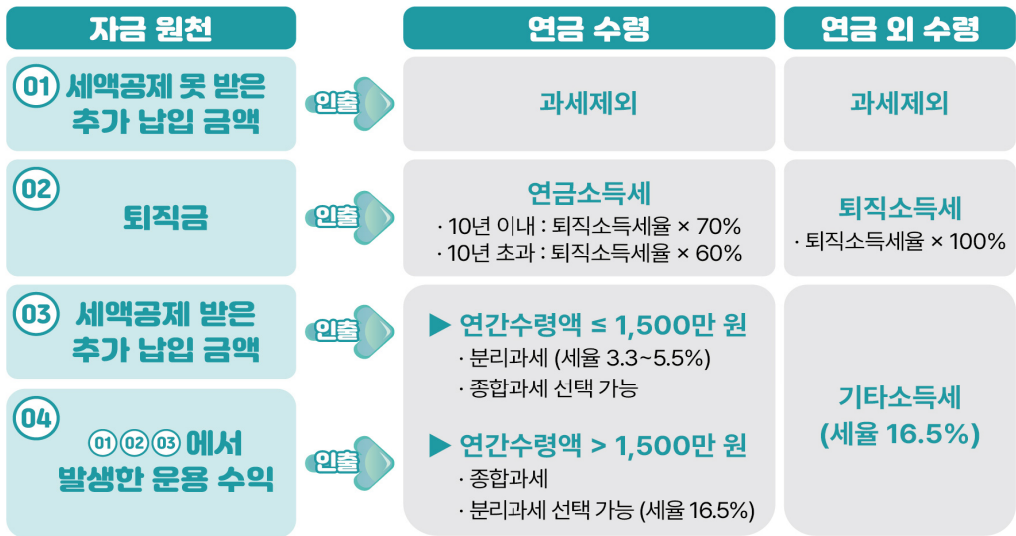
구체적 설계안			
자산명	월 납입금	현재 평가액	6년 후 금액
ISA+국내 주식 등	-	14,000만 원	17,714만 원
안전자산	-	14,000만 원	
연금저축펀드(부부)	100만 원	-	7,960만 원
연금저축펀드(자녀)	100만 원	-	
합계	200만 원	28,000만 원	51,348만 원

- 2) 노후 현금흐름(약 월 1,000만 원 확보 제안)
 - 공무원연금(약 580만 원)
 - 공제회 연금 지급(약 340만 원)
 - 연금저축펀드(약 140만 원, 2040년~)
 - 퇴직수당(IRP 약 190만 원, 10년간)

3. 기타 세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참고 자료

□ 세금 가이드(연금소득세, 종합과세)

1)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과세



최장근로(40~50대)

2)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연금 수령 시기(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 연간 1,500만 원 이상 수령 시 전액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또는 16.5% 세율로 분리과세

3) 과세표준과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지방소득세 별도

4) 연금소득공제

과세 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 원)
350만 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연금액 - 350만 원) ×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총 연금액 - 700만 원) ×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총 연금액 - 1,400만 원) × 10%

※ 금융소득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적용
- 배당·이자소득세의 기본세율 15.4%와 비교해 높은 세율 적용

□ 건강보험료 가이드

1) 피부양자 인정 요건

소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합산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도 소득요건 충족 ·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임대소득 발생 X
재산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금액
부양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인 경우 ※ 직장가입자와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정기준이 상이

2) 소득요건(부부 각각 충족 필요)

- 사업자등록자 :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자(프리랜서) :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임대소득이 '0원'이어야 함)

구 분	주택임대사업 미등록	주택임대사업 등록
임대수입금액	4,000,000원(월세 33만 원)	10,000,000원(월세 83만 원)
필요경비	2,000,000원(50%)	4,000,000원(60%)
공제금액	2,000,000원	4,000,000원
임대소득금액	0원	0원

3) 재산요건(부부 개별: A가 탈락해도 배우자는 피부양자 유지 가능)

재산 과세표준액 - 기본공제 1억

재산세과세표준 (공시가격의 60%)	공시가격 (APT 기준)	연간소득 (1,000만 원 미만)	연간소득 (1,000~2,000만 원)	연간소득 (2,000만 원 이상)
5.4억 원 미만	9억 원	피부양자유지	피부양자유지	탈락
5.4~9억 원 미만	9~15억 원	피부양자유지	탈락	탈락
9억 원 이상	15억 원	탈락	탈락	탈락

- ▶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부과 시 사용 (주택, 토지)
- ▶ 기준시가 : 국세청에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부과 시 사용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 전반)

※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부부 각각 계산

- 부부 중 1명이라도 소득금액이 초과된다면 부부 모두 탈락
- 재산은 각각 초과되는 1인만 탈락(공동명의 활용하여 재산가를 낮출 수 있음)

※ 직장가입자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별도 보험료 추가 고지

피부양자 결정 및 보험료 결정 예시

구분	소득			피부양자 여부	보험료 부과대상금액			고지 (7.09%)
	금융	연금	계		금융 (100%)	연금 (50%)	계	
금액	1,200만 원	1,200만 원	2,400만 원	탈락	1,200만 원	600만 원	1,800만 원	106,350원

노후준비
우수 상담사례집

PART
03 은퇴기(60대)



01

노후 생활비 마련하기(1)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부부 모두 66세로 배우자는 은퇴했으며, 본인은 '26년 은퇴 예정
- 은퇴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현재까지 비축된 자산이 충분한지,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
- 보장성 보험은 준비되어 있으나 건강에 자신이 없음.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유 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여 의료비로 사용 예정
- 곧 은퇴 예정, 근로소득이 없음을 가정하고 재무상담 요청

자 산		부 채
저축	5,220만 원	-
투자	48,000만 원	
퇴직금	9,000만 원(예정)	
아파트(주거용)	120,000만 원 이하	
수 입		지 출
근로소득	월 250만 원	월 300만 원
배당소득	연 480만 원	

▶ 재무 목표

1. 노후 생활비(월 320만 원) 마련
 -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
2. 퇴직금 활용 방안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노후 생활비 마련 방안

□ 현재 연금소득 준비상태

내용	현재	비고
주택연금	주택연금 : 100만 원 예상	종신
농지연금	신청 여부는 고민 중	
개인연금	보험 : 35만 원	종신
퇴직연금	본인 퇴직금 : 9천만 원 (연금으로 수령 예정)	
공적연금	본인 : 124만 원 배우자 : 54만 원	종신

필요소득(A)	320만 원+@
준비소득(B)	213만 원
필요 소득보다 월 107만 원 부족한 상태	

● 월 107만 원을 마련하는 방안

-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성 자산에서 총당 (107만 원*12개월*25년)
- 주택연금 수령 가능(12억 원 이하)

□ (실천 과제) 비상금을 목적에 따라 3개 통장으로 쪼개기

구분	생활용 비상금	특수목적용 비상금	
		의료용 비상금	투자용 비상금
적정 규모	2,000만 원 (월 생활비 320만 원*6배)	목적별로 필요한 만큼	
운용 방법	▶ 적정 규모만큼 유지 ▶ 사용 후에는 조금씩이라도 납입하여 채워넣기	▶ 의료용/투자용 비상금은 넉넉할수록 안심된다면, 배당소득(연 480만 원)을 비상금으로 적립 ▶ 일부 증권사는 CMA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발급 중이므로, 의료용 비상금 계좌 운용 시 참고	

- **(생활용 비상금 관리 팁)** 생활용 비상금으로 월 지출의 6배인 약 2,000만 원을 별도 계좌에 보유 및 유지할 것을 권장. 이 금액만큼은 생활용 비상금 목적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월 지출의 최대 6배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상금으로 비축해두었다면 '저축/투자의 기회비용'이 발생 중일지도 모름.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은 높은 자본수익을 줄 수 있는 저축/투자에 예치하실 것을 권장.
- **(목표금액 유지하기)** 비상금은 사용 후 남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저축'이어야 하고, 사용 후 목표금액만큼 '유지'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 비상금은 여윌돈이라는 생각에 계좌를 혼합해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계좌는 목적이 다르므로 용도별로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생활용/의료용/투자용 비상금의 자본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2. 퇴직금 활용 방안

□ (실천 과제) 절세하며 인출하는 전략 세우기

- IRP는 재원에 따라 퇴직금 자원 IRP, 개인이 납입한 IRP로 나뉨. IRP 계좌는 재원에 따라 과세와 인출 전략이 다르므로 각각 개설하여 관리 필요.
- 퇴직금 자원 IRP는 은퇴 직후 '개시신청(인출신청)' 필요. 개시신청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인출할 때 절세 효과 극대화. (퇴직소득세율의 30% 절세 가능)
- 개인이 납입한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과세 제외 대상임.
- 사적연금 1,500만 원 과세에 대한 걱정 토로. 개인이 납입한 IRP 중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 납입한 금액과, 퇴직금 자원 IRP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IRP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저축)은행 상품이므로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억 원임.

3. 기타 자산 축적전략

□ 나의 투자성향 파악하기

- 은퇴 예정기의 0순위 재무 목표는 큰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모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어야 함.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투자가 중요함. 고객님은 다양한 자산 배분을 구현하고 있어 내가 모르는 방식의 투자를, 추천만으로 이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커버드콜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권장함.

□ 은퇴기 투자전략?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안전하게!

- 노후에도 저축과 투자는 계속되어야 함. 다만, 손실 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청년보다 적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필요. 예금 금리는 아쉽고 투자는 조심스럽다면, 곧 출시될 IMA 계좌를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함.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평소 노후 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걱정이 많았으나, 상담 후 이미 준비된 연금성 자산과 현금성 자산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함을 인지함
- IRP 계좌 관리 및 절세를 위한 인출 방법에 대해 새롭게 학습함으로써 노후 자산을 순서에 맞게 인출하는 전략이 꼭 필요함을 인지함
- 보장성 보험을 보유 중이나, 평소 건강에 좋지 않아 의료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음. 상담 후 체크카드와 연계된 의료비 계좌를 개설하여 불안감을 해소함

02

노후 자금 마련과 개인연금 활용하기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본인은 소상공인, 자녀와 함께 지사 방문하여 상담
- 현재의 자산을 바탕으로 향후 은퇴 시기의 노후 자금 확인 원함

자 산		부 채	
예적금	5,000만 원	-	
부동산	40,000만 원		

수 입		지 출	
사업소득	200만 원	적금	150만 원
국민연금(본인)	23만 원	사업장 지출	80만 원
국민연금(배우자)	67만 원	생활비	105만 원
임대소득	45만 원		

▶ 재무 목표

1. 은퇴 이후 노후 소득 파악
2. 가입된 개인연금 예상 연금액 등 확인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 방안

□ 은퇴 예상 시기 : 2032년(71세)

- 현재 수령 중인 국민연금(본인+배우자) 90만 원 수령
- 임대주택 월세 45만 원, 연금보험 12만 원

□ 추가로 예상되는 연금 수령 제안사항

- (기초연금) 부부 합산 47만 원(가정)
- (주택연금) 2036년부터 93만 원 수령 예상(부동산 시세 2억 5천만 원 기준)
- (향후 저축하여 연금 만들기)
 - 향후 6년간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고, 이후 2032년부터 10년 동안 연금처럼 나누어 매달 수령 가정하면 월 75만 원 수령(투자수익률 2.4% 가정)
- ISA 활용방안

1) 먼저, 모아두신 목돈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배우자와 본인 각각 5천만 원 예금 예치

2) 추가로 관리하는 목돈은 ISA로 모으기

-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1년에 배우자와 각자의 계좌에 최대 2천만 원 예치 가능
-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됨
- (중도인출) 납입원금 내 자유롭게 중도 인출
- 인출 금액만큼 한도 복원되지 않음
- 의료비에 한해 인출 한도를 복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

※ (참고) '25. 4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에서 ISA 및 연금 계좌의 의료비 인출이 가능한 '의료비 전용 연금계좌' 신설

□ 위의 제안사항대로 준비하시면 은퇴 예상 시점 2032년부터 현재 물가 기준 250만 원의 연금소득 예상됨

2. 가입된 개인연금의 예상 연금액 등 확인

□ (무) ○○ 변액연금 II

-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 (단순 계산) 해약환급금 13,698원 ÷ 예시 연금액(년) 594,160원 = 23.06년
 - 위의 예시연금액(년) 594,160원을 받는 경우, 수령 후 23년이 경과해야 해약환급금만큼 수령 가능함을 안내
 - 확정연금형 '5년/10년/15년/20년'으로 수령하는 경우
 - 해약환급금과 비교하여 연금 수령 시 '전체 합계금액'의 수익률을 계산하여 해당 수익률이 만족스러울 경우, 연금 수령방식 선택하도록 안내

□ ○○ 변액연금보험

-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 (단순 계산) 전체 납부 금액 2,400만 원 ÷ 예시연금액(년) 1,055,764원 = 22.73년
 - 위의 예시연금액(년) 1,055,764원을 기준으로 수령 시작하고, 22년이 경과해야 납부 금액 이상으로 유리함을 안내

□ ○○ 연금보험

- 현재 매월 12만 원 수령 중

3. 기타 의료비 관련 제안사항

□ 노후 의료비 준비자금 필요

- 의료비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별도의 '의료비 통장' 준비
- 65세 이후 비과세 혜택(최대 5천만 원)을 이용한 준비자금 마련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현재 가입 중인 개인연금에서 기대했던 연금액만큼 수령이 되지 못함을 알게 됨
-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후 예상 은퇴 시기까지 남은 6년 동안 ISA 계좌에 적립하여 목돈을 만들 예정이라고 함

03

노후 생활비 마련하기(2)

고객 상황

▶ 상담 전 고객 상황

- 60대 초반, 맞벌이 부부 가구
- 자녀 3명 중 막내아들만 미혼
- 배우자는 개인택시, 본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70세 정도까지 활동 예정
- 2억 5천만 원 정도의 은행 예금 운용 고민
- 가계부를 활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지출내용 확인 필요

자 산		부 채
보통예금	25,000만 원	-
비상예비자금	1,000만 원	
주식(국내)	2,000만 원	
주택	28,000만 원	

▶ 재무 목표

1. 노후 생활비(월 200만 원)에 대해 이해하기
 - 기대여명까지 부부의 필요 생활비 합산 및 준비 방법 등
 - 개인연금의 종류 및 절세 방법 등
 - 연금액 늘리기,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및 합리적인 운용 방법 알아보기
2. 은행 예금(약 2억 5천만 원)의 활용방안 마련하기

상담 내용

▶ 설계 및 실천 과제

1. 노후 생활비(월 200만 원) 마련 방안

□ 소비지출 파악 및 통장 쪼개기

-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1순위
- 가계부를 통해 정확한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파악하여 근로가 가능한 시기까지 최대한의 저축액을 늘려야 함
- 또한, 수입통장과 지출통장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확인하고 비상예비자금 통장을 만들어서 갑작스러운 지출 대비 필요
- 월평균 고정지출의 2~3배 정도를 적립. 적립 방법은 파킹통장으로 월평균 수입의 초과 수입을 이체하여 관리

□ 노후 생활비에 대한 계산과 이해

- 70세까지 사업소득으로 생활 후 은퇴 예정
- 부부(2인)의 기대여명은 모두 100세까지로 가정
- 노후 자금 상담과 계산
 - 노후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기본적인 생활비는 연금으로 확보하기
 - 국민연금 : 부부 총 99만 원
 - 기초연금 : 만 65세 이후 부부 합산으로 최대 55만 원 수령. 단,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가능성 있음
 - 퇴직연금 : 140만 원 * 9년 = 약 1,260만 원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 제안. IRP 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15.4%) 과세이연, 개설 후 바로 찾더라도 1년 치의 이자 감면
 - 개인연금 : 연금저축펀드 5년 가입 후 10년 이상 나눠서 인출
 - 예) 본인과 배우자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내로 매월 약 100만 원 정도씩 납부하고, 60만 원은 안정적인 자산에 40만 원은 적립식 펀드나 ETF 계좌에 적립, 분산, 장기투자
 -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IRP), 세제 비적격(연금보험, 변액연금)

-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이 나옴
-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16.5%~13.2%의 세액공제 혜택

2. 은행 예금(약 2억 5천만 원) 활용방안

- 1억 원은 ISA 계좌의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 활용. 부부가 개설하여 3년 만기로 해지 가능. 월 납입금액을 정해서 ISA 계좌를 본인, 배우자 개설 1년에 각 2천만 원씩 불입
- 계좌 운영(주식, 예금, 펀드 등)에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필요한 곳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에는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연금저축펀드 활용
 - ※ 투자의 원칙 : 장기투자,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 ※ 연간 최대 한도액은 연금저축펀드는 1,800만 원, ISA는 2,000만 원
 - ※ 자금은 현재 저축 여력이나 만기도래 예금으로 사용

행태 변화

▶ 상담 결과 및 행태변화

- 고객님의 3년간 증권회사에 신탁 투자를 해 보았으나 기대수익률이 낮아 실망한 후에는 은행에만 목돈을 예치했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 투자에 관한 생각이 달라짐
- 길어진 수명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3층 연금의 점검이 필요함을 안내.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으로 70% 노후 자금 마련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30%는 늦었지만, 개인연금으로 채울 것을 제안
- 은퇴 준비기에는 많은 돈을 버는 투자가 아닌 큰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강조함

노후준비 우수 상담사례집

발 행 : 2026년 4월

발행처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

주 소 :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

※ 공단의 허락 없이 사례집의 내용을 전재, 복제할 수 없습니다.